



## 박빙이면 전전공공, KIA 마무리

# 송은범·박지훈 더블체제로 간다

앤서니 2군행... 불펜 재개편으로 순위싸움 가세

‘미운 오리’ 박지훈과 송은범의 변신이 시작됐다.

마무리 대란에 속을 끓였던 KIA 타이거즈가 송은범을 중심으로 해 불펜을 재개편했다. 재출전을 위해 앤서니를 2군으로 내려보냈고, 불펜에서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던 박지훈은 뒷쪽으로 이동했다. 송은범도 더블 마무리로 자리를 옮겼다.

6일 롯데전은 KIA 마운드의 첫 테스트 무대이자, 앞으로 전개될 순위싸움을 짐작할 수 있는 자리였다. 결과는 8-6 승. 첫 시범은 성공적이었다.

선발 윤석민이 강민호에게 스리런을 얻어 맞은 등 1회부터 4실점을 하며 출발했던 경기. KIA는 1-5로 뒤진 6회 이병호의 투런포

를 분위기를 끓어올랐다. 그리고 3-6에서 시작한 7회 사사구 3개와 김선빈의 2루타, 이병호의 적시타 등을 묶어 5점을 뽐으며 8-6 역전에 성공했다.

승리 앞에는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었다. 불펜의 난조로 9회 4점, 5점을 지키지 못하며 역전패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마운드가 문제였다. 특히 마무리 교체 후 첫 시험 가동에 들어간 불펜에 관심이 집중됐다.

8회 예상보다 빨리 신임 마무리 박지훈이 등판했다. 2사에서 불넷을 내주기는 했지만 박중윤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내면서 이날 마무리. 마지막 9회, 박지훈이 풀카운트 승부 끝에 대타 박준서에게 안타를 허용했다. 2루수 플라이로 원아웃이 됐지만 스트레이트 볼넷. 그러자 선동열 감독은 또 다른 마무리 송은범을 투입했다.

앞선 경기와는 다른 목직한 공과 안정된

제구를 바탕으로 땅볼을 만든 송은범은 손아섭까지 좌익수 플라이로 요리하며 승을 지켜냈다.

결정적인 방어를 한 박지훈에게 승이, 1사 1·2루에서 주자들을 묶은 송은범에게는 세이브가 돌아갔다.

한번에 5점을 만든 타선의 집중력과 윤석민의 초반 난조에도 승리를 지켜낸 불펜은 모처럼 짜릿한 역전승을 연출했다. 마무리 교체라는 승부수도 적중했다.

선동열 감독은 “박지훈이 괜찮으면 2이닝을 다 맡길 생각이었지만 불넷을 주는 과정이 좋지 못해서 송은범을 올렸다. 앞으로도 이런 패턴으로 불펜을 운영할 생각이다. 앤서니의 보직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2군에서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충분히 공을 던져보게 한 뒤 역할을 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2군에서 전전공공하던 박지훈의 부활과 명성에 미치지 못한 투구로 애를 태웠던 송은범의 활약은 앞으로 전개될 치열한 순위싸움의 정수다. 경력 부족과 불안한 컨트

롤의 박지훈에 노련한 송은범이 보조를 맞추면 안정된 마무리 조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지훈은 “박빙의 상황이라 8회 너무 집중을 했다. 힘이 떨어져서 9회 제구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려고 한다. 앞으로 더 여유를 가지고 내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SK에서 달던 46번으로 배번을 바꾼 송은범도 새 유니폼을 입고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송은범은 “어제는 (박)지훈이 뒤를 커버하러 나온 거다. 팀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훈이가 마무리로 자리를 잡아가는 게 맞다. 팀을 옮기고 러닝 등 훈련을 많이 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지만 이제 몸이 적응이 됐고 공으로 보여줘야 하는 때가 왔다”며 “아직 100%는 아니지만 공이 마지막에 치고 나가는 느낌이다. 좋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상훈, 장맛비 내리자 후배들에 “비닐 덮어라 야구해야지”

### ① 덕아웃 말말말

▲비닐 덮어라. 야구 해야지=비가 내리는 것을 본 김상훈, 후배들을 향해, 오후 늦게까지 비가 계속되면서 7일 예정된 KIA와 롯데의 경기는 우천 취소됐다.

▲뒤 있어. 이렇게 막 덤비는 거지=김상훈, 6일 경기가 8-6 역전승으로 끝난 뒤, KIA는 6일 선발 윤석민의 난조로 1회부터 4실점을 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7회 대거 5점을 뽐내며 역전에 성공했다.

▲보따리를 가지고 가네=선동열 감독, 김선빈이 선물을 잔뜩 들고 가자.

▲영업비밀인데. 난 너무 슬직해서 털이야=6일 세이브를 기록한 송은범, 어떻게 롯데 타자를 상대했느냐는 질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내가 아니라고=팀을 이적한 후 실이 많이 빠졌다는 송은범, SK선수들이 배 어디갔냐고 물어본다면서.

▲너무 집중했어요=6일 승리투수가 된 박지훈, 잘 던져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집중해서 금방 힘이 떨어졌으며.

▲몸 따로 손 따로 발 따로였지=6일 역전 결승타의 주인공 이병호, 초반에는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강하고 마음대로 야구가 되지 않았다면서.

▲내가 가져다 놓을까? 내가 가져다 놓고 갈래?=이병호, 후배 임준섭에게 라커룸에 물건을 가져다 놓아주라고 부탁을 하면서.

▲빙의 똥나 뺌=이순철 수석코치, 김주형이 좋아진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받아, 6일 경기에서 김주형은 고의사구를 얻어 걸어나가기도 했다.

▲제 보디가드입니다=사복 차림의 김진우와 나란히 걸어가던 조규제 투수 코치.

▲회수해 갑니다=월드 유니폼에 맞춰 준비한 검정 헬멧을 챙겨나가던 프런트. 한 차례 우천으로 연기됐던 월드 유니폼데이는 7일 비와 함께 다시 또 미뤄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11일 전반기 마지막 등판 8승 사냥

### SF전 6.20이닝 2실점 7승 수확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류현진(26)이 여섯 번째 도전 만에 시즌 7승(3패)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지난 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 6.20이닝동안 안타 4개, 볼넷 3개를 허용했으나 고비마다 삼진 3개를



숙아내며 1점으로 상대 타선을 틀어막았다. 류현진은 10-1로 크게 앞선 7회 2사 2루에서 승리요건을 안고 마운드를 호세 도밍게스에게 넘겼다.

도밍게스가 적시타를 맞아 류현진의 자책점은 2점으로 늘었다.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2.83에서 2.82로 약간 좋아졌다. /연합뉴스

다저스의 10-2 대승으로 끝나면서 류현진은 5월 29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를 제물로 빅리그 첫 완봉승을 거두며 6승째를 장식한 이래 38일 만에 승수를 보냈다.

류현진은 “4번째 도전이어서 이번엔 샌프란시스코 전력을 내 나름대로 분석한대로 던졌는데 승리해 기쁘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11일 오전 10시 40분 애리조나 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전반기 마지막으로 등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광주FC, 삼수 끝에 충주 2대0 완파

광주 FC가 세 번의 도전 끝에 충주전 승을 장식했다.

광주 FC가 지난 6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챌린지 16라운드 충주 험멜과의 경기에서 1골1도움을 기록한 박정민의 활약 속에 2-0 승리를 거뒀다.

앞선 대결에서 승을 챙기지 못했던 광주는 세 번의 도전 끝에 승점 3점을 더하며 충주전 부진에서 벗어났다.

전반부터 광주의 적극적인 공세가 있었다. 볼 점유율에서 앞선 광주는 미드필드와 양 측면의 조화 속에 충주를 강하게 압박했다.

박정민과 김준엽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공간을 만들었고, 루시오는 특유의 발재간과 킥력으로 경기를 풀어갔다.

수비에 초점을 맞춘 충주는 개인기가 좋은 ‘브라질 콤피’ 푸쟁야-미구엘을 내세워 역습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광주의 수비진에 막혀 충주의 공격은 무디게 전개됐다.

전반전 분위기를 주도한 광주는 몇 차례 좋은 슈팅 찬스를 살피지 못하면서 전반전을 0-0으로 마감했다.

후반에도 광주가 경기를 이끌었다. 승리의 중심에는 ‘해결사’ 박정민이 있었다.

후반 15분 박정민의 골 눈봉이 발휘됐다. 김호남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가 충주 골키퍼 황선민 손을 지나면서 박정민 앞에 걸렸다. 문전에 있던 박정민은 침착하게 오른발로 공을 빈 골대 안으로 집어넣으며 선제골을 만들었다. 박정민의 시즌 3호골.

3분 뒤, 이번에는 루시오의 득점포가 가동됐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은 박정민이 문전으로 쇄도하던 루시오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올렸다. 상대 수비수를 제친 루시오는 아크 정면에서 강력한 원발 슈팅을 날리며 충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루시오의 시즌 5번째 골이다.

박정민은 결승골과 함께 시즌 첫 도움까지 올리며 이날 경기의 승리의 주역이 됐다.

후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기를 잡은 광주는 골키퍼 김지성을 중심으로 완벽 방어망을 구축하며 충주의 저항을 막았다. 후반 막판 충주의 매서운 슈팅이 나왔지만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광주는 무실점 승리로 귀중한 승점 3점을 보냈다.

무패행진 중단으로 침체됐던 팀 분위기도 되살렸다. 광주는 지난 상주와의 홈경기에서 1-2패를 당하며 8경기 연속 무패행진에 실패했지만, 충주전에서 완벽한 승리 드라마를 연출하며 순위싸움에 제시동을 걸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의 공격수 루시오가 지난 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충주 험멜과의 경기에서 수비수 김동권을 따돌리고 원발 슈팅을 날리고 있다. <광주 FC 제공>